

9·13부동산 대책 1년 서울 집값 다시 꿈틀

초강력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등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졌던 9·13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 안정세가 이어지던 집값이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분양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7월부터 상승 전환해 1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 들어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 6일 현재 전주보다 0.05% 올랐다. 재건축이 0.04% 오르면서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0.05% 뛰었다.

아파트 거래 건수 역시 올해 7월 7,009건으로 지난해 8월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생각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점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최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디플레이션(저물가) 우려,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칼을 빼내들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양 가뭄' 우려에 최근 신축 아파트값이 불붙기 시작해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8㎡는 올해 6월 24억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말에는 27억 7,000만 원으로 4억 원 가까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란 극약처방을 내릴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외교분쟁 등으로 불안해지는 대내외 환경에서 주택 공급 감소와 시장불안이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유재산의 가격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지만 결국 길게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4~5년 후 집값 상승으로 부작용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효과? 조기 퇴근에 회식 줄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 직장인의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스포츠·레저 소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KT와 BC카드에 의뢰해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 직장인의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각과 소비 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각 분석 작업은 주 52시간제 시행 전인 작년 3~5월과 시행 후인 올해 3~5월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광화문이 하루 평균 39.2분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여의도가 9.9분, 판교가 9.7분으로 세 지역 평균 하루 19.6분 근무 시간이 줄었다. 이는 한 달에 6시간 30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주 52시간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0.6분 늘었다.

출근 시각은 늦춰졌고 퇴근 시각은 당겨졌다. 광화문의 경우 오전 7~8시와 8~9시 출근 비율은 각각 2.6%포인트, 1.4%포인트 줄었고 9~10시 출

근 비율은 2.0%포인트 늘었다. 여의도는 오후 5~6시 퇴근 비율이 3.8%포인트 증가했고 6~7시와 7~8시 퇴근 비율은 각각 0.6%포인트, 1.2%포인트 감소했다.

판교와 가산디지털단지는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모두 당겨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 지출 변화로는 헬스클럽, 테니스, 수영, 볼링을 포함한 스포츠·레저 업종과 여행 등 여가·문화·자기계발 업종 카드이용액은 평균 18.3% 증가했다.

반면 직장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포함한 유흥 업종 이용액은 판교(18.4%)와 광화문(9.3%) 모두 감소해 직장인이 회식 등을 줄이고 스포츠·레저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직장인이 근로시간 감소로 생긴 여유 시간을 여가와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생활 변화가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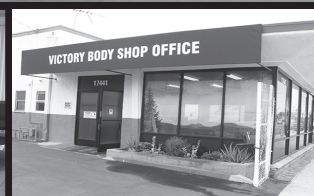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